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IG BONES

가제 : 비비는 빅 본

저자 : Laura Dockrill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홀리 스메일(Holly Smale)의 『Geek Girl』, 조이 서그(Zoe Sugg)의 『Girl Online』의 뒤를 잇는 진솔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10대 소녀의 삶과 생각들
- ★ 사회적인 잣대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또렷하게 아는 당당한 주인공의 유쾌한 이야기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서로 멀쩡하게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고 생김새, 성격, 잊지 못할 친구들 끼리의 추억으로 요상한 별명을 지어 부른다. 집에서나 학교에서 ‘비비(BB)’로 불리는 열여섯 살 오동통한 소녀는 특별한 의미는 하나도 없이 블루벨(Bluebell)이라는 본명을 줄인 별칭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비는 마치 창백하고 작은 꼬마 요정 같은 외모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이 아닌가! 고심 끝에 블루벨은 비비를 ‘덩치(Big Bone)’로 재정의한다. 외모에 한창 민감한 열여섯 살짜리 소녀가 스스로를 ‘덩치’라 칭하다니, 제 정신인가 싶겠지만 블루벨에게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키도 크고, 손발도 크고, 골격 자체가 크게 태어난 것을 어찌라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맛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마음껏 먹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남들이 뭐라고 하건 외모에 목숨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당당한 소녀 블루벨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이처럼 친근하고 호감 가는 주인공이다.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빛 갚는 기분으로 써내려 갔다는 이 이야기는 썩 예쁘지도 않고 뭐 하나 두드러지게 잘 하는 것도 없고 쿨한 척 하지만 그리 쿨하지도 못한 고민 많은 소녀의 일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본다. 정작 자신은 몸무게며 생활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식사 일기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뒤, 블루벨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시각과 그로 인한 소소한 갈등, 관계가 소원해진 부모님을 지켜보고 느낀 일들, 외모도 성격도 정반대인 여동생 도브, 갓 피어난 첫사랑의 풋풋한 감정을 우리에게 솔직히 꺼내 놓는다. 정신을 썩 빼는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을 잡아 끄는 소설이다.

다이어트라곤 생각해본 적도 없던 블루벨이 식사 일기를 쓰게 된 건 천식 발작 때문이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내내 다투다 결국 별거를 결정하고 아빠가 회사 근처로 따로 집을 얻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가족들은 물론 학교 친구들까지도 부모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나빠진 걸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엄마는 병원 진찰실에서 울기까지 했다! 원래 통통했고 원래 천식 때문에 이런저런 증상이 있었던 블루벨은 이런 격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간호사와 엄마가 동시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하루에 먹은 음식을 써보기로 한다. 병원 대기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체중계에 뜬 숫자를 크게 읽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블루벨도 “다 나 때문이야.”를 연신 외치며 훌쩍이는 엄마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암, 심장질환 같은 중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협박하는 간호사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블루벨은 영 맞지 않는 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족, 친구들, 좀 바보 같지만 귀여운 남학생 맥스와의 미묘한 감정에 대해 털어 놓는다.

학교를 십 년 넘게 다녔으면 그만 쉬고 싶은데 자꾸 대학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아빠와의 갈등으로 치솟는 분노, 질투, 절망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엄마, 같은 엄마에게 태어났으면서도 거드랑이 밑에 몰래 날개라도 숨긴 아이처럼 몸이 너무 가벼운 여동생 도브,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아빠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 그리고 블루벨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아주 매력적인 또 다른 괴짜 맥스와의 일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계가 블루벨의 눈을 통해 세세하게 전해진다. 식사 다이어리인 만큼 블루벨이 연거푸 집어 삼키는 온갖 음식들과 디저트, 간식들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침샘을 자극한다.

<저자 소개>

로라 독크릴(Laura Dockrill)은 시인이자 소설가, 작사가 등 글을 이용한 창작 활동에 매진해 왔다. YA 소설 『Loreli』로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르고 『Darcy Burdock』 시리즈로 2014년 다시 카네기 메달 후보와 워터스톤스 아동 도서상(Waterstones Children's Book Prize) 결선에 올랐다. 에딘버러 축제, 런던 문학축제 등 국의 각종 페스티벌에서 시를 행위예술로 공연하고 전시장 큐레이터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제목 : THE ASTONISHING COLOR OF AFTER!

가제 : 붉은 새가 남긴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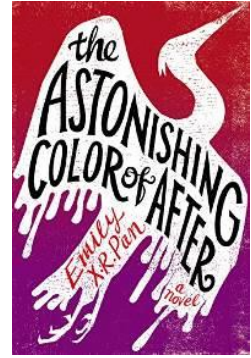
저자 : Emily XR Pan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사랑과 상실로 인한 비통함의 광범위한 감정을 아름답고 솔직하게 그려진 가슴 아픈 이야기로 포착해낸, 훌륭한 데뷔 소설이다.” – 베스트셀러 『The Fault in Our Stars』의 작가 존 그린
- * “첫 페이지부터 사로잡힌 책. 시적인 글과 마음을 울리는 현실적인 주인공은 슬픔의 힘과 사랑의 초월성을 상기시켜 준다.” – 베스트셀러 『The Wrath and the Dawn』의 작가 르네 아디에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과 기분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혹은 말보다는 어떤 향기나 기억, 색깔과 같은 다른 감각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레아와 악셀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답게 늘 “지금은 무슨 색이야?”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며 농담처럼 기분을 확인해보곤 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평온한 저녁, 악셀의 집 지하실에서 함께 팝콘을 먹고 영화를 보던 날만은 색깔로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한 첫 키스, 악셀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기 전부터 내내 레아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자마자 너무 놀라고 벅차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가장 원치 않았던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악셀은 평소처럼 장난기 어린 얼굴로 무슨 색이냐고 물었지만 레아는 황망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열다섯 살의 레아에게 부끄럽지만 소중한 날로 평생 기억에 남았을 법한 이 작은 사건은 그러나 뒤이어 벌어진,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사건에 덮여 좋은 기억이 아닌 죄책감에 얼룩진 기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악셀의 집에서 뛰쳐나와 집에 도착한 레아의 눈 앞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엄마가 들어온 것이다.

엄마가 처방 받은 우울증 약을 이미 오래 전부터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루가 지나서야 드러났다. 아빠도, 레아도 각자 집을 비운 사이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엄마로 인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 유서라도 남겼을 거라는 생각에 정신 없이 집 안을 뒤지던 중, 아빠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알약들과 쓰다만 유서를 발견했다. 아빠와 레아에게 쓴 짧은 글은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꼭 기억해줘요.’라는 말로 끝나 있었다. 이 뜻 모를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레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례식 바로 전날 새벽, 또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의 피가 고여 있던 안방의 광경을 지울 수가 없어 거실에서 쪽잠을 자던 레아가 새벽녘, 앞뜰로 나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텅 빈 밤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레아가 서 있는 현관 쪽으로 날아왔다. 새빨간 털을 가진 커다란 새 한 마리였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레아와 마주 보고 섰을 때 눈높이가 맞을 정도였던 그 새는 가만히 “레아야”라고 불렀는데, 새가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레아를 더 놀래라게 한 건 그 음성이었다. 누구보다 익숙한 음성, 가장 그리운 목소리, 바로

엄마의 음성이었다.

아빠도 친구들도 레아의 이 기이한 체험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그 날 레아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새에게 다가섰을 때 황급히 날아간 새가 남긴 붉은 깃털 한 장이 결코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엄마라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언제 나타날지 모를 붉은 새, 엄마를 기다리던 레아는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밤, 이상한 느낌에 다시 현관으로 나간다. 그러자 아무도 없는 현관 바닥에 누가 놓고 간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레아가 그것을 들어올리려는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낸 거란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새가 다시 곁에 와 있었다! “널 데려다 줄 거야.” 이 말만 남기고 다시 홀연히 떠나간 새를 멍하니 바라보던 레아는 상자를 열어보고 낡은 사진과 편지들을 발견한다. 아빠는 새가 돌아왔다는 레아의 말을 이번에도 믿지 않았지만 상자 속 내용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레아가 열다섯 살이 되도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의 부모님, 대만에 살고 있는 두 분에 관한 것임이 분명했다. 한때 음악가였지만 중국어 학자로 진로를 바꾼 아빠는 레아 대신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보냈다는 글, 엄마가 외면했던 그 글속에는 레아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왜 엄마는 레아 앞에서 중국어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아빠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대만에서 지내던 시절은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언급도 하지 않고, 레아가 물어보면 딱 잘라 대화를 끝내버렸을까? 아빠는 직업 탓에 대만을 오갈 일이 많았고, 레아가 두 살 때 두 분을 찾아가 레아의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레아는 대만에 가기로 결심한다. 왜 엄마가 새가 되어 레아 앞에만 나타난 것인지, 이 비밀을 레아가 직접 풀어보기를 바란 건 아닌지 알아내야만 했다.

아빠의 만류에도 결국 대만으로 떠난 레아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처음 만나 엄마가 살았던 집, 엄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소들을 찾아간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굴던 엄마의 반응은 아빠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외조부와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어렵게 결심한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사무치는 그리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난다. 누구도 나쁜 의도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했을 가족들의 사연을 접하며 레아는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미래를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저자 소개>

에밀리 X.R. 팬(Emily X.R. Pan)은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뉴욕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보데가 매거진(Bodega Magazine)」의 초대 편집장을 맡고 있다.